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2020 WINTER

vol.139

이토록 귀여운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지 않는 당신, 어쩌면 산타클로스는 이미 어른이 된 당신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등바등 사느라 크리스마스의 낭만은 잊어버렸다면, 로봇처럼 하루하루 주어진 임무를 해내느라 메말랐다면 올해는 기대해봐요. 당신이 곤히 잠든 동안 바이크를 탄 2020년의 요즘 산타클로스가 다녀갈지 몰라요. 그가 머리맡에 몰래 선물을 두고 가는 상상만으로 올 크리스마스는 이미 따뜻하네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로 산다는 것

올해의 끝자락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즈음, 예전이라면 유난히 분주한 나날을 보냈던가요. 연말뿐 아니라 올해 내내 왁자지껄 즐겁게 보내지 못했지요. 우리들의 관계는 잠시 멈춤이었을지 모르지만 올 한 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 누군가가 있지 않은가요. 다름 아닌 '나'. 그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면서 나의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렸었다면, 내년에는 새삼스럽게 발견한 '나'와 더 친하게 지내보세요.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로 살면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참 근사한 일입니다.



인하대병원보 2020년 겨울호(통권 제139호)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CONTENTS

Vol.139
 2020 WINTER

2 찰나의 순간 이토록 귀여운 크리스마스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로 산다는 것

SPECIAL THEME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우는 '나눔'의 가치
 8 SPECIAL THEME 01 당신의 겨울 외투처럼 착해지고 싶다
 10 SPECIAL THEME 02 인하대병원의 아름다운 나눔 풍경
 16 SPECIAL THEME 03 누군가는 나눔을 실천하는 여전히 살 만한 세상
 18 SPECIAL THEME 04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

사람과 건강

22 건강 읽기 감기와 독감 구별법
 24 인하포커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30 영화와 인생 영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와 <007 스카이폴>
 34 계절밥상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고구마 레시피
 36 콧노래 여행 시간이 멈춘 마을, 메스티아
 42 친절한 인하인 친절한 인하인을 소개합니다

인하, 사람

44 인하가 만난 사람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람들
 48 인하라운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슬선수법
 50 인하이슈 인하대병원 중도 중복장애 학생지원사업
 52 특특 약물상담 아토피 치료제
 53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54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6 진료안내표



SPECIAL THEME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우는 '나눔'의 가치

춥고 배고픈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도움이 필요한 매서운 계절, 겨울입니다. 감염병이 일상에 오래도록 매복하면서 평소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이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뉴스에 우리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팍팍한 세상이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인하대병원도 같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해외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매년 의료비지원 사업, 섬 프로젝트, 중도 중복장애 학생 의료컨설팅, 생명존중콘서트,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나눔은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기부와 봉사 같은 나눔 활동은 자기만족 등 감정적 보상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 두 배, 아니 그 이상이 된다니 '나눔'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출발한 '나눔'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므로 인하대병원과 함께해주시기를 청합니다. 2020년 겨울호 <ON>에서는 시린 겨울, 이웃을 살피는 인하대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당신의 겨울 외투처럼 착해지고 싶다

머칠 전 친한 선배와 통화가 길어졌다. 으레 그렇듯 '오늘의 점심 메뉴'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에피소드까지 소소한 일상을 묻고 답하다가 올해 내내 우리 일상을 침범한 감염병 이야기에 '코로나 앵그리'가 되어 흥분했다. 수다는 자연스럽게 내년 계획으로 넘어갔다. "당분간 이렇게 가겠죠?" "내년도 별 수 없지" 식의 허탈함으로 이어지던 이야기는 어느새 20년 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미래의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

선배는 말했다. "60살까지만 일하고 그 후에는 봉사활동을 하자"고. 선배는 경제적 약자인 고령자나 결식아동에게 끼니를 배달해주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원래도 선배를 좋아하지만 그 순간 선배가 더 좋아졌다.

또 얼마 전에는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손가락을 멈칫하게 만드는 피드를 발견했다. 이름은 클린하이킹. 등산하며 쓰레기를 줍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나 셀러브리티의 기부 뉴스를 접할 때, 구세군 자선냄비를 마주할 때, 대한적십자사의 지로용지를 받는 이 모든 순간, 나는 움찔하고 만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꾸리다가 '잠시 멈춤'하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다. 어쩐지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이정표를 만난 듯하다. 머릿속에서 섬광이 번쩍하는 것 같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해본다. 내 삶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성실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매월 아주 적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며 해외 결식아동을 돕고 있지만 이건 자발적이라기보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여동생의 권유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알량한 행위가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힘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 나는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라는 일종의 자기 위안이 되고, 움켜쥐며 욕심 부리는 대신 나누며 살 때 좀 더 근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해지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온라인마켓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을 때보다 '무료 나눔'을 했을 때 더욱 기쁘고 좋았다. 나누며 산다는 건 무엇인가에 이토록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걸까. 순수한 기쁨은 '나눔'에서 온다는 누군가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추운 겨울이다. 날씨가 매서워지면 마음의 자리에는 여유가 더 없어진다. 늘 종종대면서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하나 있다. 바깥 활동이 많은 나는 이 계절, 날카로운 바람을 막아줄 두툼한 외투가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일렁인다. 착한 온기로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겨울 외투를 툭툭 두드리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을 지경이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날이 선 겨울날 도톰하고 두툼한 외투 같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까지 푹푹 얼어버리는 겨울날, 여름처럼 뜨거운 사람, 꿈꾸는 이상형이다.

나눔의 가치와 나눔의 기쁨을 결코 잊지 않아야겠다고 유난히 추운 올겨울, 조심스럽게 선언해본다. 찰나의 뉴스에 움찔하지 않고 나눔을 성실하게 실천하며, 그 나눔으로 내 삶이 단단히 채워지기를 바란다. 받았다면 결코 잊지 말고, 주었다면 잊어도 좋다고 했다. 가진 일부를 내어 누군가와 나누었다면 더욱 그럴 일이다. 우리 각자의 작은 나눔이 모여 커다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 아닐까.

인하대병원의 아름다운 나눔 풍경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인하대병원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하대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자.

세상을 바라보는 인하대병원의 시선

인하대병원은 1996년 한진그룹 故조중훈 회장의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과 지역사회 보은'이라는 숭고한 뜻에 따라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지역사회·시민과 함께하는 병원',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시선은 넓게, 멀리, 그리고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인하대병원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해외 활동과 국내 활동으로 나뉜다. 먼저 해외 활동은 의료봉사과 무료 초청 수술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매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를 살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의료비지원 사업, 섬 프로젝트, 중도 중복장애 학생 의료 컨설팅, 생명존중콘서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외국인 진료지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순회문고 운영, 사랑의 연탄 나눔, 벽화 그리기 등의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해외 의료봉사, 지구촌 곳곳에 퍼지는 마음

인하대병원은 보건의료가 취약한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가 활발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구촌 곳곳에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해 현지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고, 의약품을 보급한다. 현지 사정이 어려운 환자는 초청해 수술을 진행한다. 인하대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시작한 지는 10년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우간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으로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끊임없는 중동의 종교 갈등과 내전으로 불안정한 레바논 티르 지역에 파견된 동명부대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마음이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의료지원 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응원하는 활동이다. 지난 1년 동안 대략 780건, 2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진행했다. 의료지원 사업에는 SK와이브스와 함께하는 '행복드림캠페인' 소아암 환아를 위한 지정기부금 사업도 포함된다.



다 같이 부르는 희망 노래, 생명존중콘서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끝에서 출발한 것이 생명존중콘서트다. 인하대병원에서는 매년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존중콘서트를 개최한다. 2016년 시작한 생명존중콘서트는 지역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랑은 병원선을 타고, 섬 프로젝트

인천시청, 용진군보건소와 함께 병원선을 타고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섬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섬 프로젝트'도 인하대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인천시 살기 좋은 섬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서 의료 소외 지역을 방문해 무료진료를 시행한다.





사회공헌 활동 모범 사례, 중도 중복장애 학생 의료 컨설팅

중도 중복장애란 중증 장애가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진행하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 의료 컨설팅은 전국 최초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인하대병원 학생들의 의료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의 연탄 나눔

인하대병원은 매년 11월이면 인하대병원을 기다리고 있을 이웃을 만나러 간다.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인하대병원 임직원과 가족들이 연탄 4,000장을 배달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올해도 이웃들의 추운 겨울을 외면할 수 없던 인하대병원은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단, 코로나 1단계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고, 직원들은 각별히 조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무사히 마쳤다.

오래된 골목에 숨을 불어넣다, 벽화 그리기

벽화 그리기는 지역사회에 행복을 나누고, 따뜻한 거리를 조성하는 인하대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오래된 골목길에 인하대병원의 손길이 닿으면 살아있는 동네로 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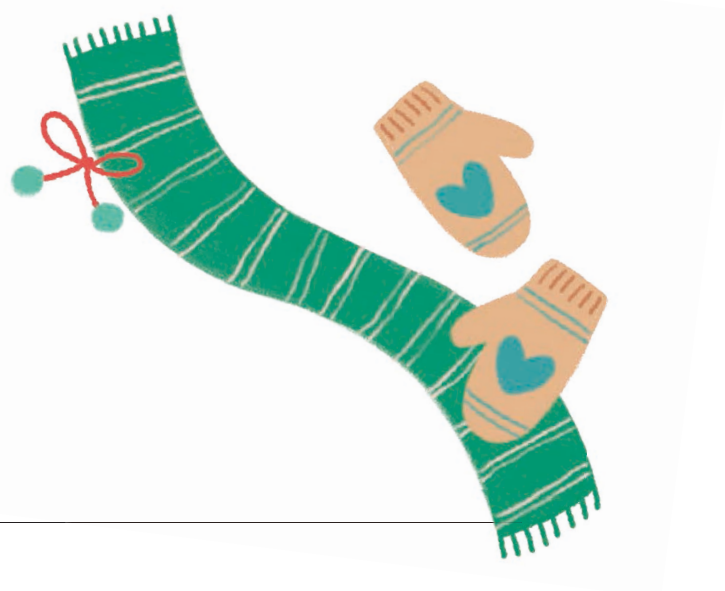


이번 겨울호 <ON>에서는 사회공헌지원단 김시현 팀장과 김원태 아나운서가 만나 인하대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눔을 실천하는 여전히 살 만한 세상

달랑달랑, 익숙한 종소리를 울리며 자선냄비가 등장하는 때다. '한해를 무사히 보냈다'는 마음 한편으로 올해 유난히 어려웠을 이웃들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우리 사회 곳곳,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나눔 활동 관련 이야기와 통계를 한 자리에 모았다.



76

코로나19 자원봉사자는 76만 명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 봉사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로를 모색한 결과 언택트(Untact) 방식의 자원봉사가 등장했다. 가장 많이 시행된 자원봉사는 코로나19로 수요가 많던 마스크, 손세정제, 비누 등 위생물품을 제작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외에도 소외·취약 계층과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조리 및 배달 자원봉사도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농산물장터'와 같은 색다른 나눔 아이디어를 접목한 봉사활동도 진행됐다.

코로나19 탓에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국민 76만 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202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민은 약 233만 명으로 추산한다. 자원봉사 활동은 방역소독, 홍보캠페인, 격리자 지원, 물품배부, 물품제작 등이었다. 지난 2월과 3월, 마스크 대란 속에서 국민들은 힘을 모아 마스크를 제작해 나누거나 코로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지역 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방역·소독 활동에 참여했다.

1,500

300

우리나라 기업들의 나눔 경영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나눔 경영에 나섰다. 삼성은 올 8월 경기 용인과 고양에 위치한 사내 연수원 두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며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는 병상 부족 문제에 보탬이 됐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영세 시장 상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헌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프트카 레드카펫'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데, 헌혈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다. 헌혈의 집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 원하는 장소에서 쉽게 헌혈할 수 있도록 돕는 '프라이빗 헌혈 서비스'로 구성된다. 내년 6월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선정한 9개 혈액원을 중심으로 순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SK '행복얼라이언스'는 급식 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 1500명에게 한 달간 4만2000끼를 긴급 제공했다. LG는 계열사별로 금융과 기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6.1



자원봉사, 참여 의향 있는 사람은 36.1%

내 시간을 내어 남을 돕는 자원봉사. 하지만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는 2009년 이후 하락세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 나눔실태」에 따르면 2009년 19.3%에서 2011년 17.6%, 2013년 17.7%, 2015년 16.3%, 2017년 16.2%로 집계됐다.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36.1%로 집계됐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5~19세가 차지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았고, 주로 직장, 학교, 종교단체 등 소속단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 동기는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잊지 말자, 생명 나눔 실천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헌혈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헌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 단체 헌혈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전국적으로 혈액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2011년 2,616,575건부터 2015년 3,082,918건까지 꾸준히 헌혈건수가 증가했지만 2019년 2,791,092건으로 감소 추세다. 연령별로는 2019년 기준 20~29세가 36.5%로 가장 많은 헌혈을 실시했다. 혈액형별로는 2019년 기준 A형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O형 27.7%, B형 26.7%, AB형 11.5% 순으로 집계됐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 생명 나눔 실천에 동참해도 좋겠다.

36.5

A =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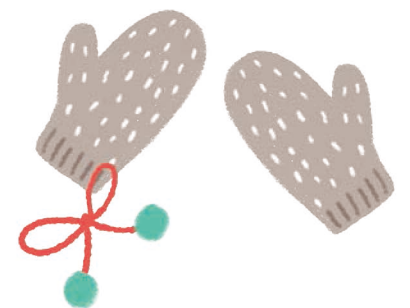
O = 27.7

DONATION

기부, 가진 일부를 내어 놓다

기부는 나눔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연예인 중에는 기부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을 가진 사람은 25.6%이며 기부하지 않은 사람은 74.4%이다. 향후 기부 의향이 있는 사람은 39.9%로, 2011년 45.8%, 2013년 48.4%, 2015년 45.2%, 2017년 41.2%로 감소 추세다.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안 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받은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1.9%)'다. 두 번째 이유는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25.2%)' 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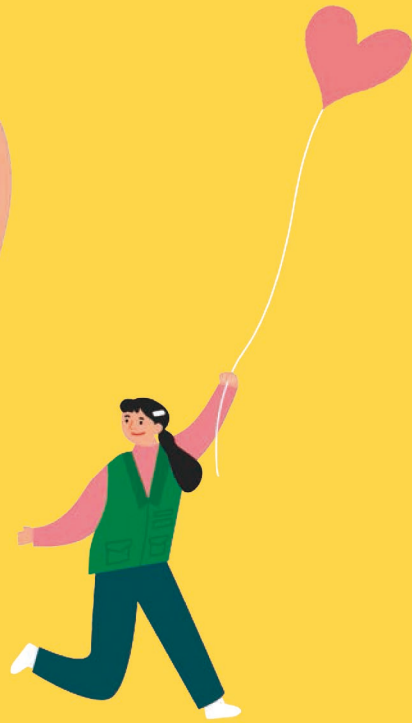
25.6 vs 74.4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

나눔은 행복을 만든다

나눔은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비대면(Untact) 봉사활동 등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주춤거리지 말자. 그 어느 때보다 나눔의 손길이 절실한 2020년 겨울이다.



소외계층을 향한 진심, 의료봉사·일반봉사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같은 소외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평소 의료봉사·일반봉사에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겨울에 동참하자. 서울 영등포에 자리한 '요셉의원'은 30년 넘게 소외된 이웃을 돌본 자선의료기관으로 전문 의료인의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미용, 인문학 강의, 법률 상담 서비스 등 일반봉사도 이뤄진다. 봉사신청은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02-2634-1760)에서 할 수 있다. 2008년 한국인 의사 7명이 시작한 의료봉사에서 출발한 국제개발 NGO '굿뉴스의료봉사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방법이다. 이곳에서는 전문 의료진뿐만 아니라 휴가와 방학을 맞은 직장인과 학생도 봉사할 수 있다. 봉사신청은 굿뉴스의료봉사회 홈페이지(www.gnmv.org)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나눔, 비대면 봉사활동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이 망설여지는 이들에게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추천한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모자뜨기봉사다. 정성스럽게 모자를 떠서 보내면 모자가 필요한 저체중, 저체온증 아기의 체온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모자뜨기봉사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모자뜨기' 홈페이지(www.sc.or.kr/moja/join/joininfo.do)를 통해 할 수 있다. 도서입력봉사도 대표적인 비대면 봉사활동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도서를 제작하기 위해 텍스트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봉사활동으로, 고등학생 이상이면 가능하다. 'IT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홈페이지(www.itlo.org)에서 참여할 수 있다.



유기견과 더불어 사는 세상, 유기견 봉사활동

반려 인구가 늘면서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를 키우거나 또는 개를 키우지 않더라도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라면 유기견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권한다. 유기견 봉사활동은 주로 유기견 보호소나 입양센터 등에서 이뤄지는데, 산책 나가기, 밥 챙기기, 배설물 치우기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봉사를 한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구 유기동물 분양센터 리본' 홈페이지(www.reborncenter.org)와 인천에 자리한 유기동물 보호소 '복순이네'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boksoon_home) 등을 통하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유기견 봉사를 하면서 사료 기부나 후원 등을 할 수도 있다.



엄마의 마음과 정성으로, 반찬 배달 봉사활동

따뜻한 밥 한 끼의 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 엄마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배달한 반찬은 단순히 아이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에게 자신을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경기도 군포시에 자리한 '형겘원숭이운동본부'는 어른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어른 되기 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지역 내 취약 아이들에게 반찬을 배달해주는 '푸드 키다리' 뿐만 아니라 맘마미아 푸드트럭 등 아이들의 식생활 지원 활동을 한다. 봉사신청은 형겘원숭이운동본부 홈페이지(www.clothmonkey.or.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 종로의 '친구네지역아동센터'(02-745-0794), 인천 서구의 '푸른솔생활학교'(032-577-4009) 등을 통해서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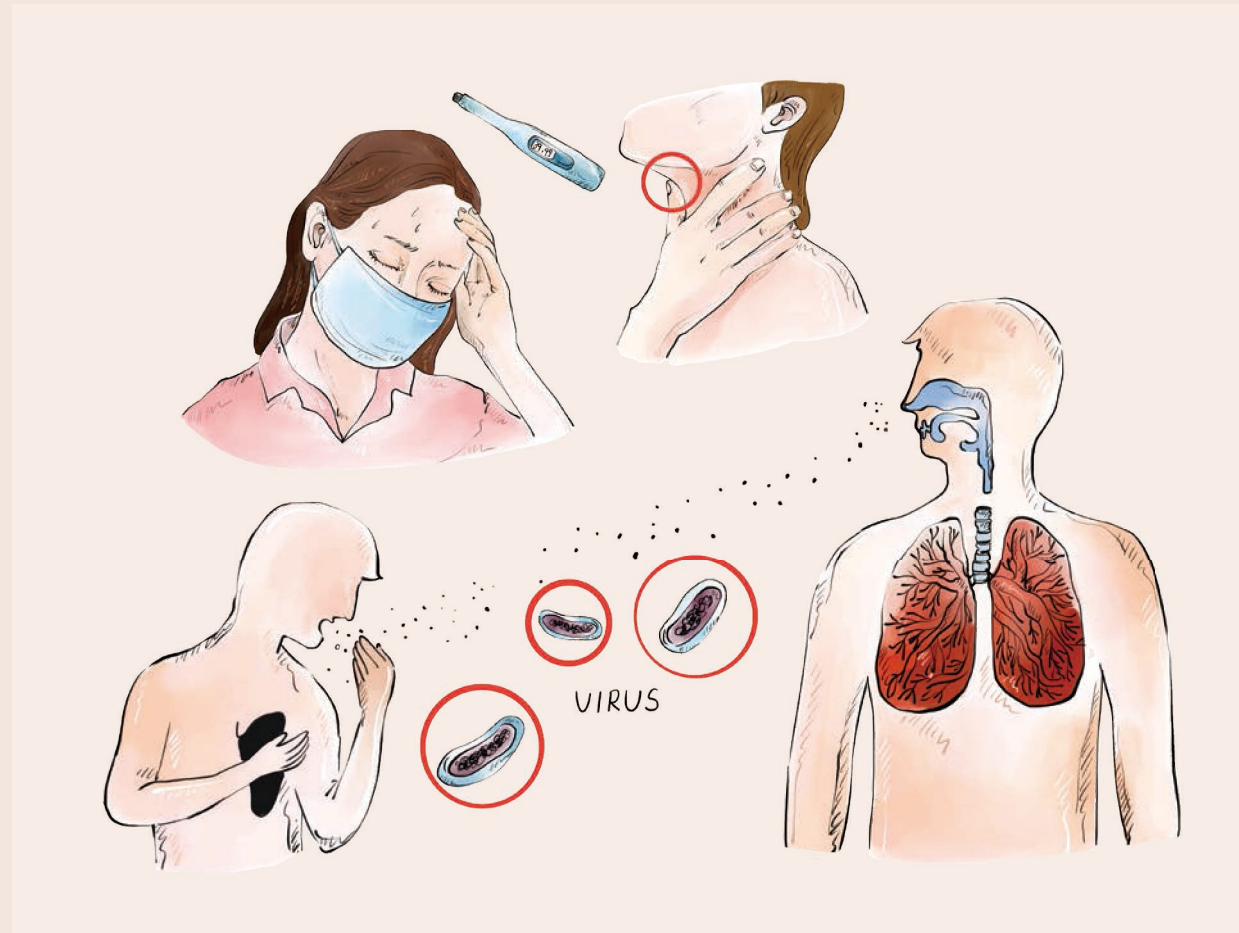
물질로 전하는 성의, 기부

나눔을 실천하고 싶지만 물리적 시간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기부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외 어린이를 위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 6.25 전쟁고아 구호사업 이후 국내외 아동복지 사업에 힘쓰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에서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NGO 단체 '굿네이버스' 홈페이지(www.goodneighbors.kr)에서도 후원을 통해 아동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유엔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icef.or.kr)를 통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건강한 삶을 꾸리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제안합니다.



감기와 독감 구별법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다르다

독감, 감기,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여전히 '독감'을 '독한 감기'로 알고 있다면 다음을 주목하자.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다른 질병이다. 감기의 주요 증상은 콧물, 기침, 발열 등이며, 독감 역시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감기와 독감을 다른 질병으로 분류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알아보자.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

감기와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른 질병이다. 감기는 코와 목 등 상기도가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감기 바이러스는 200여 종이다. 이와 달리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하나가 원인이다. 하지만 증상은 감기보다 더 심하게 나

타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B·C형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에서도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심각한 독감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A형은 전염성이 강하고, 형태 변이를 자주 일으키며, 폐렴 등 합병증을 일으키는 성질이 강해 가장 조심해야 할 종류다.

증상과 경과, 합병증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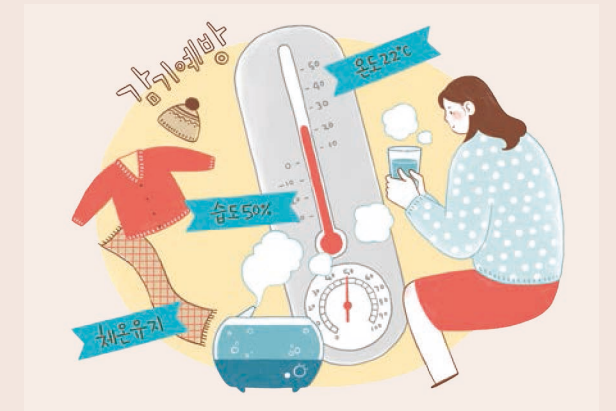
감기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1~2주 동안 완만하게 지속된다. 이후 개인의 면역력에 의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독감은 증상을 방지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독감에 걸리면 심한 감기 증상에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염 등 전신질환이 나타난다. 이 증상 자체로 고통스럽지만, 참는다고 방지하면 폐렴, 천식 등 합병증을 초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심장 질환자·만성폐질환자·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들과 자주 접촉하는 가족, 의료계 종사자 또한 독감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료 방법이 다르다

감기는 충분히 휴식하면서 2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낫는다. 따라서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세끼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다만, 증세에 따라 적절한 약을 복용하는데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는 해열진통소염제를, 가래나 기침이 심하면 진해거담제를 복용한다. 반면 독감은 감기보다 증상이 심각하고 자연 면역력만으로 호전되기 어려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치료해야 한다. 이때 증상이 나타나고 48시간 이내 적용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잘 알려진 항바이러스제는 먹는 형태인 타미플루, 주사 형태인 페라미플루가 있으며,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아야 한다.

백신 없음 VS 백신 있음

감기는 보통 개인이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에 예방 백신이 따로 없다. 하지만 독감은 증상이 심각하고 자칫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으므로 예방백신이 연구·개발되었다.



독감 예방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세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3가백신과 네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4가백신으로 나눈다. 독감백신의 항체가 생기려면 2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독감이 본격 유행하기 전인 9월 중순부터 1월 중순 사이에 접종받는 것이 좋다. 가격은 시중 병원 기준으로 2만5천 원에서 4만원 정도다. 특히 독감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은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생활 속에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려면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 손을 잘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식사 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마스크 착용 습관은 생활화하자.

감기와 독감의 차이점

	감기	독감
시기	1년 내내	11월~2월(계절성)
원인	여러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상	서서히 시작되는 미열, 콧물·기침·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고열, 두통, 콧물·기침·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극심한 피로감·근육통·관절통·오한 등의 전신 증상
경과 및 합병증	보통 2~5일 지나면 자연치유. 심한 경우 결막염, 축농증, 중이염	휴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 심한 경우 감기 합병증 증상에 폐렴, 천식 동반,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치료	없음(증상에 따라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 복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예방접종	없음	매년 10월 예방접종 권장

안하포커스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황지수
교육간호사

재활의학과
김창환 교수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

이대형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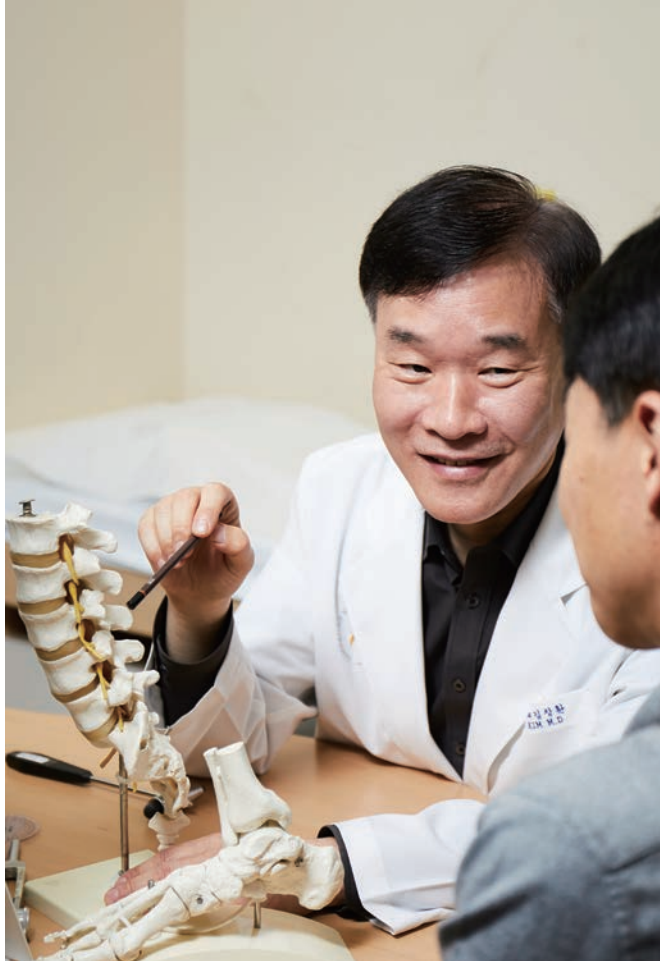
류마티스내과
임미진 교수

정형외과
이동주 센터장

류마티스내과
정경희 교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때까지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인하대병원은 올 하반기에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정형외과, 류마티스내과, 재활의학과 의료진이 함께한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진들은 환자가 질병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을 때까지 성실하고 꾸준하게 진료한다.



전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도권 중심의 전문 진료 분야 집중 현상으로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 진료 분야에 마련한 제도다. 접근성이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전문적이며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 분야는 지역 사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요구는 크지만 실제 진단과 치료에 제한이 많은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등 총 4개 분야가 해당된다.

인하대병원은 2020년 하반기에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 의료진 교육 등 원활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정형외과 이동주 센터장은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병원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및 약물 복용, 수술 후 주의사항 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릿을 제작하고, 골다공증 환자들의 약 복용 실태 조사와 교육을 통한 개선 효과의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것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 의료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의 수준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와 치료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고관절, 슬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수술, 신경수술, 상지 관절경, 골절, 발목 인공관절, 어깨관절 치환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 진료를 통한 안전한 일상 복귀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필수 진료과는 정형외과, 류마티스내과, 재활의학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예방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환자 교육과 진료를 위한 병원의 모든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센터 내 의료진은 고관절 및 슬관절, 수부, 족부, 견관절 등을 다루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등을 진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근골격계와 척추 손상을 치료하는 재활의학 전문의로 구성된다.

센터는 환자가 질병을 적절히 이해하고, 장기 진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환자 중심의 다학제적 진료 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별 질환에 맞는 치료와 예방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환자가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동주 센터장은 “환자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국가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중홍보 캠페인과 지역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원내 사회공헌지원단과 협의해 의료취약지인 도서 지역 의료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한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진 및 전문 진료 과목

진료과	의료진	전문 진료 과목
정형외과	문경호 교수	고관절슬관절 관절 치환술, 골다공증,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동통, 슬관절(무릎) 동통, 퇴행성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김명구 교수	슬관절(무릎관절) 질환, 무릎관절의 모든 분야(인공관절, 관절염, 운동 중 손상, 연골 손상, 인대 손상)
	강준순 교수	인공관절(슬관절·고관절), 관절염, 무혈성 괴사, 골다공증, 관절염, 골종양, 인공관절
	조규정 교수	척추질환, 척추 재수술,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척추 골절
	이동주 교수	상지수부, 골절, 미세수술, 상지 스포츠 손상, 신경수술, 관절염, 상지 관절경, 종양, 손 저림(손, 손가락), 손 통증, 손가락 통증, 손목 통증, 테니스 엘보, 손목 골절, 골절, 신경마비
	김범수 교수	족부, 족관절, 외상, 무지 외반증, 발목 인대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관절염, 발목 불안정성, 발목 인공관절, 발목 관절 내시경, 평발, 요족, 당뇨발
	권대규 교수	소아정형, 뇌성마비, 중앙, 족부·족관절 질환, 외상, 다지증, 합지증, 골격계 희귀질환
	전윤상 교수	어깨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류마티스내과	박 원 교수	관절염, 골다공증, 루푸스
	권성렬 교수	강직척추염, 척추관절염, 관절질환, 자가면역질환, 관절염, 베체트병, 레이노증후군
	임미진 교수	관절질환, 자가면역질환, 관절염, 통풍, 혈관염
	정경희 교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척추염, 통풍, 전신경화증, 루푸스, 자가면역질환
재활의학과	김창환 교수	신경계 재활(파킨슨씨병 등 퇴행운동질환, 말초신경병 진단 및 재활), 근육관절·척추질환 재활, 운동기능 장애, 근골격계 통증(디스크 질환, 목, 허리, 어깨 통증, 오십견, 인대 손상, 근막통 증후군) 말초신경 장애(손저림, 발저림, 어지럼, 두통), 골다공증, 노인병, 초음파 신경 관절 클리닉
	김명옥 교수	척추손상, 언어 장애, 발 통증, 의지보조기, 암 재활(림프부종), 척추손상, 목·허리 통증, 언어발달 지연, 발 통증 및 소아 흰다리(족부 클리닉), 의지보조기, 림프부종 클리닉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정형외과

정형외과에서는 관절염을 비롯해 고관절·슬관절 치환술, 골다공증, 인공관절 치환술, 연골 손상, 인대 손상, 척추질환, 상지·수부, 골절, 손 통증, 신경마비, 족부, 발목, 소아정형, 골격계 희귀질환, 어깨 관절 등을 진료한다.

2003년부터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하는 이동주 센터장은 손 및 상지의 질환을 연구하고, 김범수 교수는 족부 족관절 분야를 담당하며 족부 족관절에 발생하는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에 대해 변형교정술, 인공관절 치환술, 유합술 등을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발목인대 손상, 골연골병변, 무지외반증과 같은 질환과 당뇨발이나 폐쇄성 말초동맥질환으로 인한 족부 과사로 고생하는 이들도 김범수 교수의 치료 대상이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정형외과에서는 인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또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에 힘쓰며, 환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한다.

김범수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관절이 모두 망가지고 변형이 발생할 때까지 약물로만 치료하다가 늦게 정형외과를 찾아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훨씬 결과가 좋듯, 류마티스관절염도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수술 범위도 작고 결과가 좋다. 인하대병원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는 류마티스 환자들이 가급적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류마티스내과,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류마티스내과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골다공증, 루푸스, 강직척추염, 척추관절염, 관절질환, 자가면역질환, 레이노 증후군, 통풍 등을 진료한다.

류마티스내과 과장 임미진 교수가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부센터장을 맡았다. 인하대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진료한 지 올해로 14년이 되었다. 류마티스내과 정경희 교수는 2011년부터 함께해오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예전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불치병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임미진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질병은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도 류마티스관절염을 진단받는 순간 절망하고 좌절하는 환자가 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생물학 제재들을 포함한 약물치료가 활성화되어 관리 가능한 희망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통해 인천 지역에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환자들에게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고 싶다.”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의 류마티스 질환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관절 변형 등의 후유증 최소화에 매우 중요하다. 임미진 교수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눈에 띄게 붓거나 아침에 관절 뻣근함이 심하다면 꼭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 봐야 한다”고 말한다.

흔히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관절염만 진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관절 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다룬다. 류마티스내과 정경희 교수는 센터를 찾아 보다 정확한 건강 정보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당부한다. “요즘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기 쉬워지면서 환자들이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 놓여있다. 우리 센터에서는 가능한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정보보다 병원 의료진의 정확한 정보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한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에서는 신경계 및 근육, 관절·척추질환, 운동기능 장애, 근골격계 통증, 말초신경장애, 골다공증, 노인병, 목과 허리 통증의 진료와 재활 치료를 시행한다.

재활의학과 김창환 교수는 인하대병원에서 1996년부터 진료하고 있다. 주로 노인들에게 나타나 통증과 일상 생활을 제약하는 퇴행성관절염, 신경계 통증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한다. 현재 재활의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임상통증학회 이사장, 신경근육질환 재활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재활의학과에서는 통증 조절과 관절 기능 회복을 통해 일상으로 복



귀할 수 있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경근육질환과 관절질환의 평가를 위한 신경계 생리검사,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 등과 도수근력 검사 관절가동범위 검사, 보행분석, 관절기능 검사, 일상생활의 동작평가, 손 기능평가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개인 맞춤 치료를 포함하는 재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창환 교수는 치료 시 사랑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의료진은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는 의료진을 믿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질병은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아니다. 관절염은 환자와 같이 살아 가야 하는 힘겨운 동반자다. 하지만 관절염 환자의 예후는 매우 다양하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인생의 목표를 모두 바꿔버릴 만큼 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의료진들은 환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원한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이므로 믿고 함께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영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와 <007 스카이폴>
**존 르 카레의 스마일리와
 이언 플레밍의 본드**

눈 쌓인 추운 날, 따뜻한 방에서 007 영화를 보거나 고즈넉한 카페에서 르 카레의 소설에 빠져보는 것은 겨울의 묘미다. 옛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스파이 영화의 진수인 존 르 카레의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와 이언 플레밍의 <007 스카이폴>을 소개한다.



스파이 영화 장르의 시작

최초의 스파이 영화는 1910년대 무성영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1차대전 직전의 전운과 불안이 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쳐 적국의 스파이가 침입해 의사당을 폭파하려 한다는 내용의 <The German Spy Peril>(1914)이 최초의 스파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스파이 영화를 대중화시킨 사람은 스틸러의 황제 알프레드 히치콕이다. <39계단>(1935), <사보타지>(1937), <사라진 여인>(1938) 같은 영화로 무고 민간인이 스파이망이나 국제적 음모에 말려드는 내용을 다룬다. 이때의 영화들은 스틸러에 가깝다. 처음 스파이의 프로세서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는 히치콕의 <비밀요원>(1936)이다. 이 영화는 W. 서머셋 몸(Somerset Maugham)의 소설 『어센든(Ashenden)』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다. 『달과 6펜스』, 『인간의 굴레』로 유명한 몸은 한때 자발적으로 영국정보부를 위해 일한 경험이 있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적 소설이자 최초 스파이 소설 『어센든』을 썼다. 작가 어센든이 영국 첩보대 R 대위의 의뢰로 유럽을 다니며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한다는 일종의 모험극이다. 스파이 장르의 인기가 최고점에 도달한 것은 냉전이 극에 달한 1960년대다. 취향이 완벽히 다른 두 걸출한 대중 소설가가 스파이 소설을 양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존 르 카레(John le Carre), 다른 하나는 이언 플레밍(Ian Lancaster Fleming)이다. 두 작가가 창조한 스파이, 조지 스마일리와 제임스 본드는 대중의 머릿속에 현실 속 직업 스파이와 화려한 판타지 속 영웅적 스파이의 두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

넣었다. 특히 후자는 <007>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영화 프랜차이즈로 발전한다.

존 르 카레는 옥스퍼드 출신의 외교부 관료였다. MI6의 전신인 영국 외교부 정보부의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죽은 자에게 걸려온 전화』로 1961년 데뷔하고, 곧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1963)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이 소설은 마틴 리트 감독, 리처드 버튼이 주연을 맡은 걸작 흑백 영화로 탄생한다. 르 카레의 스파이 세계는 현실적이고 비정하다. 그들은 서류를 뒤지고 정보를 캐고 미행

하고 사람을 포섭하는 일을 한다. 자국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차 없이 속고 속인다. 그의 소설에서 심멸되어야 하는 대상은 배신자와 이중 스파이지만, 작가가 드러내고 싶은 진짜 악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한 허상이다. 대표작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냉혈한 정보전 속에 베를린 장벽에서 희생되는 황폐한 삶의 스파이를 다룬다. 르 카레는 스파이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강요 속에서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인간 군상의 세계를 그려낸다.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르 카레의 걸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토마스 알프레드슨이 감독을 맡고, 게리 올드만이 주연을 맡아 열연한다. 비정한 스파이 세계를 그린 이 영화는 영국 워킹 타이틀이 만든 스파이 버전의 셰익스피어 극이자 첩보 버전의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다.



은퇴 생활을 하던 영국 정보국의 조지 스마일리는 정부쪽 비밀 의뢰를 받고 영국 정보국 수뇌부 안에 숨어 있는 KGB의 이중 스파이를 추적해 나간다.

BAFTA에서 최고의 영국 영화상 받은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영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르 카레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1979년 명우 알렉 기네스를 주연으로 BBC에서 TV 시리즈로 만들었다. 워낙 완성도가 높아 이런 수작이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했는데, 이 영화가 그것을 깨 버렸다. 토마스 알프레드슨이 감독을 맡고 게리 올드만, 존 허트, 콜린 퍼스, 베네딕트 컴버배치, 톰 허디, 마크 스트롱 등 당대의 영국 배우들이 열연한다. 영국 '워킹 타이틀'이 제작한 스파이 버전의 셰익스피어 극이며, 첩보 버전의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다. 영국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 BAFTA에서 최고의 영국 영화상을 받았다.

영국 정보국의 국장 컨트롤 C(존 허트)는 서커스 안에 KGB의 이중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 챈다(르 카레는 자신의 소설에서 영국 정보국 MI6은 서커스, 수장은 C, 이중 스파이는 두더지 mole이라 부른다. 이 은어는 실제 정보에 역수입되어 사용되었다). 이중 스파이를 알아내기 위해 현장 요원 짐 프리도를 부다페스트로 보내나 작전은 참극으로 끝나고 C와 그의 측근 스마일리는 서커스에서 축출된다. C가 죽고 은퇴 생활을 하던 스마일리에게 정부쪽에서 서커스 수뇌부 중 이중 스파이를 찾아달라는 비밀 의뢰가 들어온다. 그는 서커스의 직원 피터 길럼(베네딕트 컴버배치)와 함께 수뇌부의 이중 스파이를 추적해 나간다. 우리에게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하는 아이들 놀이가 있듯, 영국 아이들은 톱퍼(땀장이), 테일러(재단사), 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출연진과 작가 존 르 카레. 앞줄 왼쪽부터 마크 스트롱, 존 허트, 존 르 카레, 게리 올드만이다. 뒷줄에 콜린 퍼스와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모습도 보인다.



〈007 스카이폴〉은 제임스 본드 영화 중 서정적이면서 외전적인 작품이다. 작품성과 영상미로 잘 알려진 샘 멘데스가 제임스 본드 50주년 기념으로 이 영화를 맡아 007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반추하는 우아하고 심도 있는 최고의 본드 영화를 만들어냈다.



작전의 실패와 중상으로 짐작했던 제임스 본드는 퇴출에 몰린 M과 궤멸 직전의 위험에 빠진 MI6를 재건하기 위해 복귀하여 사상 최대의 적 실바와 마주한다. 본드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두 번 다시 찾지 않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비밀이 간직된 스카이폴로 속적 실바를 유인한다.

저(군인), 세일러(선원), 리치맨(부자), 푸어맨(가난뱅이)… 순으로 세며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놀이가 있다. C는 서커스의 고위 간부들 하나하나에 이 이름을 붙이고 용의점을 추적해 나간다. 영화의 제목은 여기서 가져왔다. 피날레는 이중 스파이(그가 누군지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를 부다 페스트에서 돌아온 짐 프리도가 조용히 처단하고 존 스마일리는 서커스 수장으로 복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퀀스로 끝난다. 자칫 평범할 피날레를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파리 올림픽 실랑곡 ‘La Mer’가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마지막 장면은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이다.

제임스 본드 영화 중 가장 서정적이면서 외전적인 〈007 스카이폴〉

이언 플레밍은 이튼 칼리지와 뮌헨대학을 나와 「선데이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현장 요원 경력은 없었지만 전쟁 때 해군 정보부의 첩보 분석가로 활동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탁월한 실제 요원 2명을 모델로 제임스 본드라는 인물을 창조했다. 제임스 본드라는 이름은 평소 즐겨 읽던 조류 도감의 저자 이름이었다. 1953년 첫 번째 작품 『카지노 로열』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이후 자메이카의 별장 ‘골든 아이’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매년 한 권꼴로 집필하여 007을 주인공으로 한 12권의 장편과 2권의 단편을 낸다.

르 카레의 생활형 스파이와 달리 플레밍의 스파이는 사람들을 대리만족시키는 고전적 영웅이자 마초적 활극 주인공이다. 소설에서 묘사한 제임스 본드는 검은 머리에 냉정한 눈, 약간 잔인해 보이는 입에, 오른쪽 뺨에 세로로 긴 흉터가 있다. 예비역 해군 중령이자 영국 외무부 정보부에 속해 있으며 유니버설 무역이라는 가상 회사에서 일한다. 월터 PPK를 사용하며 영국계 벤틀리로 드라이브하는 것을 좋아한다. 플레밍은 냉전과 대중문화의 시작점인 1950~1960년대에 제임스 본드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007이 영화로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2년이다. 손 코네리를 주연으로 이온(Eon) 프로덕션이 만든 〈닥터 노〉를 시초로 2년에 한 번꼴로 지금까지 총 24편이 만들어졌으며 제임스 본드 역을 한 배우만도 여섯 명이다. 지금까지 70억 4천만 달러를 벌었으며 해리 포터, 마블 코믹스에 이은 세계 3번째 가치의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호사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제임스 본드는 〈007 스카이폴〉까지 50년 동안 서방 세계와 영국을 23번 구하고 362명의 악당을 죽였다.

〈007 스카이폴〉은 제임스 본드 영화 중 가장 서정적이면서 외전적인 작품이다. 본드걸과 멋진 Q의 테크놀러지를 기대한 팬들 중 일부는 이게 무슨 007 영화냐며 화를 냈다.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뷰티’로 아카데미를 수상한 후 제도권의 총아였던 샘 멘데스가 감독을 맡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다른 차원의 007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했다. 샘 멘데스는 작품성과 영상미로 잘 알려진 감독이다. 올해는 〈1917〉로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에 올랐으나 봉준호 감독에게 밀렸다. 본드역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맡았으며 MI6의 수장 M역은 주디 덴치가 맡아 007 시리즈에서는 마지막으로 열연을 하였다. 메인타이틀의 주제곡은 아델이 맡았다.

본드는 원작에서 영국 비밀정보부(British Secret Service) 또는 HMSS(여왕폐하의 비밀정보부 Her Majesty's Secret Service) 소속으로 묘사되지만, MI6가 일반에게 공개된 1990년대부터 정식으로 MI6 소속으로 묘사된다(영국에는 해외 정보 업무만 다루는 외무부 소속 정보부 MI6와 영국 내 방첩을 담당하는 내무부 소속 정보부 MI5가 있다. MI는 military intelligence의 약자로 관행적인 이름이다. 공식 명칭은 비밀정보부 SIS와 방첩부 SS이다). 본드는 MI6 내 00 섹션에 소속된 7번째 요원이다. 이 소설의 가상 부서는 해외 정보 수집, 요인 납치 암살, 사보타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초법적 업무를 하는 존재다. 말하자면 00요원은 필요하면 요인 암살도 임무에 포함되는 현장 요원이란 뜻이다.

제임스 본드는 MI6의 전 세계 잠복 요원들의 명단을 가진 적을 추적하던 중 냉정한 MI6의 수장M(주디 덴치)의 오판으로 유탄을 맞고 실종된다. 본드가 놓친 정보로 MI6는 사상 최대의 위험에 빠진다. 과거 M에게 버림받고 새로운 범죄 조직의 수뇌가 된 전직 요원 출신 실바는 MI6를 궤멸로 몰아넣는다. M은 퇴출의 위기에 빠진다. 그때 실종되었던 본드가 돌아와 실바와 마주 대한다. 본드와 M은 사상 최강의 적 실바와 마지막 결전을 치른다. 본드의 어린 시절 비밀이 간직된 스카이폴에서…

스카이폴은 본드의 어린 시절 자란 스코틀랜드 황야의 저택이다. 본드는 극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두 번 다시 이곳을 찾지 않았다. 이곳에서 어린 본드는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동안 지하 병커에 숨었던 일을 겪었다. 그 일을 기억하는 저택 지기 노인은 이렇게 회고한다. ‘그가 병커로 들어갈 때는 소년이었지만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천애고아를 00요원으로 뽑는 정보부의 규칙을 생각하면 본드의 삶은 여기가 시작점이다. 이곳에서 악당은 사라지고 본드의 정신적 어머니 M은 숨을 거둔다. 그리고 스카이폴은 흔적도 없이 불타 사라진다. 샘 멘데스는 제임스 본드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반추하는 우아하고 심도 있는 최고의 본드 영화를 만들어 냈다.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챗터 저술을 한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본지에 매회 2편의 주옥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본드가 자랐던 스코틀랜드 황야의 스카이폴. 이곳에서 어린 본드는 부모님의 살해를 목도했다. 그 사건 이후 어린 본드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었다. 아델의 주제곡처럼 본드는 자신의 삶의 원점인 이곳으로 돌아와 모든 것과 맞선다.



역대 제임스 본드. 왼쪽부터 로저 무어, 티모시 달튼, 다니엘 크레이그, 손 코네리, 조지 라젠비, 피어스 브로스난. 50년 동안 24편의 영화가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영화 프랜차이즈다. 르 카레의 직업 스파이와 달리 플레밍의 스파이는 사람들을 대리만족시키는 고전 영웅이자 마초적 활극 주인공으로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다.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고구마 레시피

뿌리, 줄기, 잎 등 버릴 것 하나 없는 구황작물, 고구마는 영양이 탁월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고구마에는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다. 베타카로틴이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 외부 병원체 침범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인 피부가 튼튼해진다. 긴 겨울 고구마파프리카샐러드와 고구마라테로 건강을 챙기자.



Tip

고구마는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흠집이 없는 것이 좋다. 부패하거나 싹이 트기 쉬운 고구마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기가 잘 되며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손질할 때는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세척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껍질을 벗긴 후에는 얇은 설탕물에 담가두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고구마파프리카샐러드

재료(2인 기준) 고구마 2개, 노랑빨강 파프리카 각각 1개
부재료 아보카도 1/2개, 플레인 요거트 50g, 다진 아몬드 30g, 유자청 20g, 마요네즈 10g, 머스터드 10g, 설탕 30g, 레몬 1/6개, 브로콜리 150g
만들기 ① 고구마와 파프리카는 깨끗이 손질하여 1×1cm로 썰어서 설탕물에 담가둔다. ② 양파는 곱게 다진 후 물에 한 번 헹구어 마운맛을 제거한다. ③ 양파, 플레인 요거트, 유자청, 마요네즈, 머스터드, 다진 아몬드, 레몬즙을 섞어 샐러드 소스를 준비한다. ④ 깍둑썰기 한 고구마는 냄비에 물을 넣고 으개지지 않도록 익힌다. ⑤ 브로콜리는 밀동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손질하여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뒤 찬물에 담갔다 건져 물기를 제거한다. ⑥ 고구마와 파프리카에 ③의 소스를 버무려 준비한다. ⑦ 접시에 브로콜리를 등갈래 놓고 소스에 버무린 고구마와 파프리카를 담아낸다.
Plus Tip 견과류는 땅콩, 호두, 밤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다. 고구마뿐 아니라 사과, 배, 감 등 제철 과일을 함께 이용해도 좋다. 담백한 맛을 내고 싶으면 플레인 요거트에 소금, 식초, 설탕 등으로 밀간한다.



〈계절밥상〉의 〈고구마파프리카샐러드〉는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로 이동합니다.



고구마라테

재료(2인 기준) 삶은 고구마 6개, 우유 4컵 부재료 꿀 2큰술, 소금 약간
만들기 ① 믹서에 삶은 고구마와 우유 분량의 반을 넣고 먼저 갈아준다. ② 남은 우유를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 갈아준다. ③ 꿀을 넣고 섞는다. ④ 컵에 담아낸다.
Plus Tip 시나몬 파우더를 뿌리면 맛과 향이 업그레이드된다.

시간이 멈춘 마을, 메스티아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하는 기내에서 두 눈이 번쩍 뜨이는 풍광을 목격했다. 솜사탕이 내려앉은 것 마냥 하얗다하얀 눈으로 뒤덮인 캅카스 산맥의 장엄한 설산이 곧장 시간을 멈춰 세웠다. 비행기의 소음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시간을 깨우지 못했다. 오직 두 눈에 담긴 저기 저 황홀한 설산만이 오감을 채웠다. 트빌리시에 도착하자마자 북쪽으로 가는 교통편부터 수소문했다. 시간이 멈춰버린 그곳을 직접 보기 위해, 그곳에서 여행자의 시간을 찾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메스티아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빙판길에 오르다

설산은 둘째치더라도 캅카스산맥 자락은 여러모로 찾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흑해와 카스피해를 잇는 산맥이자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이며, 조지아와 러시아의 국경을 구분 짓는 주요 거점이기 때문이다. 한데 설산을 보겠다고 무턱대고 계획한 여정이 일순간 틀어질 위기에 처했다. 폭설로 인해 북쪽으로 가는 교통망이 모두 막혔다. 이곳 조지아 사람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때 아닌 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토로했고,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는 조지아 땅에도 영향을 끼치며 이들이 겪어온 어제의 겨울을 빠르게 잊아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트빌리시에서 버스로만 갈 수 있는 조지아 북동부에 위치한 카즈베크산은 목적지 옵션에서 자연스레 걸러졌다. 트빌리시에서 200킬로미터를 달려 닿을 수 있는 거리지만 폭설로 꽁꽁 언 도로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 캅카스산맥을 따라 자리한 카즈베크산은 최우선에 놓인 옵션이었지만 자연의 변화 앞에서 여행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대체 옵션을 찾던 중 구글 지도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이 바로 메스티아다. 지도상에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타원형 모양의 흰 면적이 눈에 들어왔고, 어쩌면 설산으로 뒤덮인 산골마을을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샘솟았다. 트빌리시 관광안내소 직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트빌리시에서 주그디디까지 야간열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다행히 기차길은 기상이변의 영향을 비껴간 것 같았다.

이른 아침, 주그디디역에 도착해 메스티아행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운행한다는 사실에 기뻐한 것도 잠시, 국



2·5·6·7 — 스바네티 지방 특유의 탑형 건축양식
3 — 메스티아로 가는 길
4 — 마을 초입을 알리는 푯말

도는 뚫렸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버스운전자의 말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다 다들까 주그디디 시내를 지나자 버스는 본격적인 산길 오르막을 시작했고, 산을 깎아 만든 도로에 진입하자 눈으로 꽁꽁 언 빙판길이 나타났다. 버스가 오르막길을 올라갈수록 차창 밖 풍경은 낭떠러지가 계속 이어졌다. 깎아지른 언덕 너머 눈으로 뒤덮인 나무는 흡사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해 놓은 듯 황홀한 풍경을 자아냈지만 빙판길을 달리는 버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또한 커져갔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꼬불꼬불한 곡선도로를 계속해서 지나치고서야 저 멀리 '메스티아에 오신 걸 환영한다(Welcome to Mestia)'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살았다. 해냈다. 기내에서 내려다본 그 풍경이 마침내 여행자의 시야에 닿았다.

중세시대로의 시간 여행

메스티아는 캅카스산맥의 해발 1,500미터에 자리한 고지 마을이다. 지역 주도인 주그디디에서 북동쪽으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스바네티 지방의 중심마을로, 스바네티 지방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메스티아를 거쳐야 한다. 이곳은 외국인 여행자보다 조지아 현지인들의 휴가지로 더 각광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스바네티는 조지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인 지방으로서 유려한 산악 풍경을 배경으로 중세 시대의 마을과 탑형(塔形) 주택들이 들어선 곳으로 유명하다. 이 역사적인 곳에서 여름에는 푸르른 산과 호수를 보기 위해, 겨울에는 스키나 보드 등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현지인들은 이곳을 찾는다.

스바네티 지방은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인구리 강을 중심으로 상류 내륙은 어퍼 스바네티, 하류 내륙은 로어 스바네티로 구분된다. 메스티아는 어퍼 스바네티의 메인 타운이다. 여행자를 반기는 호텔과 상점, 레스토랑, 카페, 트레킹 코스 등이 인포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 하나둘 위치한다. 한데 그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곳에서 호텔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나 성격과는 사뭇 다르다. 스바네



티 지방 특유의 중세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일반 가정집에서 먹고 자는 홈스테이 형태에 가깝다. 스바네티 지방에 탐험 건축양식이 들어선 건 9세기부터다. 험하고 좁은 골짜기를 배경으로 산비탈 위에 작은 마을이 형성된 스바네티 지방 특유의 지형적 조건이 탐험 주택의 건축양식을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이 건축양식은 '스바네티안 타워'라는 고유명사가 붙었을 정도로 지역 특색이 강하다. 대부분의 탐험 건물은 20~25미터 높이에 4~5층 규모로 지어졌다. 탑의 각 층은 내부 나무계단으로 연결되고 지붕은 마치 책을 펼쳐서 얹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박공구조로 덮여 있다. 탑의 꼭대기 층은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전해진다.

술이 익어가는 여행자의 집

나지 라티아니 아주머니와 기비 라티아니 아저씨가 운영하는 나지 홈스테이에 짐을 풀었다. 부부가 젊은 시절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집은 몇 년 전 타지에서 온 여행자를 하나둘 들이기 시작하면서 '게스트하우스'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장성한 아들과 딸은 가정을 이뤄 더 큰 도시,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났고, 둘만 남은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여행자의 집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한때 자녀들로 북적거렸을 2층 방과 거실은 이제 여행자 차차다. 그 옛날 2층짜리 탐험 주택에서는 가족 단위를 이룬 스반족이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이 함께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에 기르는 가축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과 층을 잇는 좁다란 나무계단과 협소한 주방과 거실, 단출한 살림살이가 삶의 규모보다 지혜를 엿보게 했다.

나지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을 찾은 여행자를 위해 테이블 가득 환영 만찬을 차렸다. 난로에서 막 꺼낸 치즈가 듬뿍 들어간 빵과 와인, 전통주, 요거트 등 모두 아주머니가 손수 만든 것들이다. 특히 이 마을의 전통주인 차차는 조지아 브랜드로 와인 보드카, 포도 보드카, 조지아 보드카 등의 닉네임이 붙는다. 찌꺼기를 뜻하는 포머스 브랜드라고도 부르는데, 와인을 주조



8·11·12 - 나지 홈스테이 내부 모습.
9·10 - 여행자를 위한 환영 만찬.
13·14 - 우시바산으로 가는 길.
15 - 우시바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동물왕국.

하고 남은 포도 찌꺼기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 바로 차차다. 차차의 시작은 농부들의 집에서 자가 양조로 출발했다. 현재는 공장에서 증류주 생산자들이 전문 생산방식으로 만들고 있으나 여러 지방 마을에서는 여전히 집에서 오리지널 차차를 만든다. 나지 아주머니가 만든 차차는 알코올 도수가 40도 가량 되는 독한 술임에도 불구하고 향긋한 과일 맛이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 자꾸만 훌쩍였다. 그 사실을 기비 아저씨가 눈치 챘는지 빈 잔은 아저씨의 발 빠른 행동으로 자꾸만 채워졌다. 기비 아저씨가 아니었더라도 술은 계속해서 목구멍을 타고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골마을의 밤을 채우는 옵션은 술 말곤 주어지지 않았다. 술이 달콤하게 익어가는 메스티아의 밤, 빙판길을 달려오길 잘했다 싶다.

눈 밟는 소리를 들으며

다음 날 눈길을 무작정 걸었다. 기비 아저씨는 폭설로 등산이 금지되었다며 산에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당부를 건넸다. 아저씨를 안심시킨 후 저 멀리 우뚝 솟은 우시바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목표는 높이 쌓인 눈 때문에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걷는 것이었다. 마을의 주택가를 벗어나자 날씨 때문인지 길에는 사람보다 개나 소, 말, 돼지 같은 동물이 더 자주 보였다. 목표를 향해 걸음을 댄 지 두어 시간 지났을까? 종아리 높이까지 수북이 쌓인 눈 위로 수레바퀴 자국이 선명했다. 산자락 아래에서 장작을 구해 나르는 수레의 흔적이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은 세계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며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에 오감을 집중했다. 눈 밟는 소리에 귀 기울여본 적이 언제였는가? 답은 쉬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쩌면 질문을 다르게 바꿔야 할지도 몰랐다. '눈 밟는 소리에 귀 기울여본 적이 있었는가?'라고. 이틀째 와이파이 없는 세상에, 스마트폰의 필요성이 없어진 세상에 머물고 있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자처한 와중임에도 여기저기에서 날아든 메시지를 재빨리 확인하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이메일을 수시로 점검하며, 인터넷에서 찾은 다량의 여행 정보는 넘쳐도 너무 넘쳐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 하루가 지나면 도시로 돌아가 다시금 똑똑한 삶의 패턴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순간, 포근한 눈 위에 몸을 맡긴 채 육체도 정신도 잠시 잠깐 활동을 멈춘다. 현실의 시간이 멈춘 마을에서, 여행자의 시간이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다.

친절한 인하사를 소개합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보호자 여러분에게 칭찬 받은 직원 대상으로 매월 '칭찬 직원'을 선정합니다. 7월과 9월 칭찬 직원으로 선정된 <친절한 인하사>을 소개합니다(소속은 수상 시점 기준).

07월



정성택 교수(외과)

칭찬합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동안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늘 정성 다해 진료해주시고, 위로까지 해주셔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 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훌륭한 직원이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 다. 환자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9월



장신아 교수(산부인과)

칭찬합니다! M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채송화 교수님이 생각날 만큼 따뜻한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좋은 말씀으로 칭찬해주시고, 귀한 상으로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스러운 진료를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09월



조은정 간호사(입원간호 3팀 - 서12병동)

칭찬합니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서 물어봐주고, 신속한 대처 로 큰 힘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 이 마음 잊지 않고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하겠습니다.

09월



입원간호2팀(동 15병동)

칭찬합니다! 동 15병동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 모두 친절하십니다. 헌신적 인 간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맑은 미소로 정성껏 환자 를 돌봐온 부서원들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쁩니다. 기쁨의 순간을 오 래도록 가슴에 품고 다가올 2021년에도 칭찬 나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 려하겠습니다.

INHA, PEOPLE

당신의 건강을 귀하게

인하대병원은 산처럼 우직하게 같은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람들 누군가의 삶의 끝에서 마음을 더하다

신주희 공용윤리위원회
전담간호사



김소희 수간호사



송숙녀 연명의료
코디네이터



이하영 자문형
호스피스 코디네이터



류은수 사회복지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람들은 이곳에서 감사를 배운다. 먹고 산책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기적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누군가의 삶의 맺음을 돕는 중요한 일을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람들은 이곳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한다.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말기 암환자와 가족에게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증 및 신체적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치료하여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직원들은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별 후 남겨진 가족이 고통과 슬픔을 잘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 인하대병원은 2015년 10월 20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입원형 호스피스)를 개소했다. 그 후 연명의료, 올 8월부터는 일반 병동 말기 암환자를 찾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를 추가해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모습을 갖췄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병동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 중인 병동과 담당 의료진 변동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인은 대부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김소희 수간호사는 “호스피스 선택이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 말기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 호흡곤란, 부종 같은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하루하루 일상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수분과 영양 공급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팀원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독특한 팀워크를 통해 얻은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류은수 사회복지사는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가장 큰 자랑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간의 팀워크다. 완화의료센터 구성원들은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슬로건처럼 완벽한 팀워크 아래

완화의료센터 말기 암환자들의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경제적·심리적·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소희 수간호사는 호스피스완화센터의 내년 계획에 대해 “코로나 탓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한이 많은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에서 임종을 원하는 환자가 많아 여건이 허락하면 가정형 호스피스를 정착시키는 것도 장기적 과제”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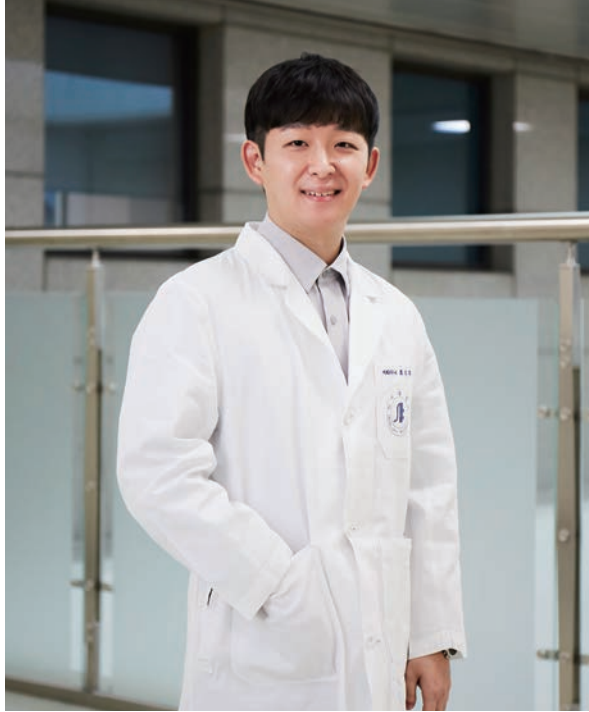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도 포함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삶의 마지막에서 연명의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결정 즉,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미리 삶을 정리할 기회를 갖고,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도록 결정하는 제도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미리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자가 점점 늘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질병에 대한 인식과 예후를 알리기 어려워 하던 담당 의료진들도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리 사전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다. 연명의료 업무 관련해 송숙녀 연명의료 코디네이터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금씩 죽음에 대한 문화를 바꾸면서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바란다. 인하대병원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환자나 가족, 의료진이 제도에 쉽게 접근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등을 개최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내원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인하대병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인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도 신경 쓰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신뢰할 만한 병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김소희 수간호사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에요

1997년에 인하대병원에 입사해 정신과와 내과 병동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호스피스병동 간호단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입원형과 자문형은 국책 사업이므로 1년 사업을 계획해 진행하고 평가합니다. 연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다학제적 팀원들이 협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영적 필요를 살피고 개별 요구도를 파악해 소원성취프로그램, 요법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말기 암환자들은 통증과 섬망을 경험합니다. 통증과 섬망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생의 마지막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실해 통증과 섬망 조절이 잘 이루어져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누리고, 가족에게 그간 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후 임종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힘든 순간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두고 오열하는 가족의 눈물을 볼 때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위로도 의미 없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볼 때는 감정이 이입되어 더욱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죽음은 결코 슬픈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가족 모두가 둘러싼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편안한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환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환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기에 호스피스 치료를 선택하면 의미 있는 소통이 어렵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중단되고 기대여명이 2~3개월인 때 호스피스 돌봄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류은수 사회복지사
삶의 아름다운 끝맺음이 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에서의 사회복지사는 병동 내 돌봄행사 기획과 진행, 예산편성과 집행 등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영적돌봄을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성직자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성직자 이외의 호스피스병동에서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사이가 소원했던 가족들이 우리가 준비한 이벤트를 통해 화해하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팀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입원 초기에는 호스피스를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시간이 지나 호스피스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의 삶을 아름답게 추억하며 마무리하는 젊은 20, 30대 환자들의 이상적인 '호스피스'의 모습에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대상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일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호스피스는 '죽으러 들어가는 곳'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호스피스를 떠올렸을 때, '죽음'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끝맺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송숙녀 연명의료 코디네이터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1997년 1월 인하대병원에 신규 간호사로 입사했고,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직후부터 연명의료 코디네이터로 근무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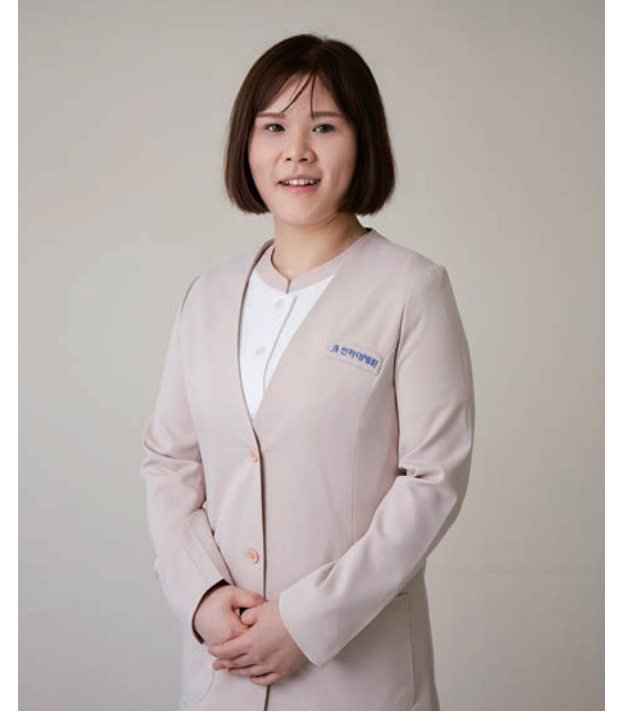
인하대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진 및 환자와 환자가족 상담, 연명의료 결정절차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상담, 의료진 교육 및 연명의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간사 역할, 연명의료결정 법정서식의 시스템 등록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 권역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의 교육, 행정 등 지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가운데 환자와 환자 가족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명의료결정은 '죽음'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꺼내기 어렵고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또는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현재 상태를 잘 받아들이고 더 나은 마무리를 준비하도록 격려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상담해보면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지 않고, 질병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가족이 일방적으로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면 나의 존재가치를 잃는 것 아닐까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맡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결코 의료진들이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증상 조절과 완화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희 공용윤리위원회 전담간호사
목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잘 정착시키는 것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권역별로 12개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환자 및 환자 가족, 의료진 간 갈등 시 심의를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용윤리위원회 전담인력으로서 인천 지역의 윤리위원회 미설치 중·소 의료기관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위탁협약을 맺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역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소 의료기관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상담을 시행합니다. 팀에서는 공용윤리위원회 전담 업무와 함께 연명의료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원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상담 및 서식작성, 시스템에 서식등록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 생애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막상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용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역에서 이번에 인하대병원과 위탁협약을 맺게된 기관에서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목표는 위탁협약기관에 교육, 상담 등을 시행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잘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기관도 늘어나고, 인천 지역의 연명의료센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영 자문형 호스피스 코디네이터
잘 사는 것만큼 웰다잉도 중요해요

말기 암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등의 시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호스피스 서비스(통증 및 신체증상 관리 자문, 생애 말기 돌봄 계획 및 상담지원, 심리적·사회적·영적 지지,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 자원연계 및 경제적 지원, 호스피스 연계 등)를 제공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의 장점은 호스피스 서비스 초기 진입과 진료를 받는 질환 담당 의료진의 변경 없이 호스피스팀의 증상 관리와 상담을 비롯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할 때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환자나 가족의 마음이 어떨지, 환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등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의료진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환, 같은 상황이라도 환자와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각기 다르기에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근본 취지는 남은 삶을 최대한 편히 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동양인들에만 특징적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죽음이 즐거울 수는 없지만 웰빙(well-being)이 중요한 만큼 웰다잉(well-dying)은 더 중요합니다. 웰다잉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입니다.

자문형 호스피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만큼 인하대병원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구축과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속마음도 쉽게 털어놓는 '쉬운'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손 씻기

손은 각종 유해 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신체 부위다. 한쪽 손에만 6만 마리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다. 이 세균은 눈, 코, 입, 피부 등으로 옮겨져 질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만지는 음식이나 물건 등에 묻었다가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방역이 주요 예방법으로 강조되면서 덩달아 수두와 볼거리 등 5종 법정감염병이 지난 4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손 위생은 각종 감염병을 줄이는 큰 역할을 한다.

손 위생에도 방법이 따로 있다. 환자 접촉 전·후, 청결·무균한 처치를 하기 전, 체액 노출 위험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에 알코올젤 20~30초, 물과 비누로 40~60초간 씻어야 한다. 그 외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식사 전 등 일상 속에서도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손 위생을 할 때에는 손바닥뿐 아니라 손등, 손가락 윗면, 손끝, 손가락 사이사이도 씻는 것이 좋다.

손 위생은 최근 매일 강조되고 있지만 바쁜 일상에 자칫 놓치기 쉽다. 나와 소중한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술선수법'하는 습관이 모이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인하대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술선수법

인하대병원은 매년 10월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즈음해 '손 위생 증진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는 10월 14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다. 손 위생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인하대병원의 손 위생 증진 행사를 만나보자.

올바른 손 씻기로 바이러스와 거리 두기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매년 10월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맞아 '손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하대병원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손 위생 증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10월 14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다.

손 위생 퀴즈, 손 위생 슬로건 응모, 손 위생 인증 사진 콘테스트 등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2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손 위생 퀴즈에는 약 14%의 만점자가 나왔으며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으로 '핸드워시'를 전달했다.

손 위생 슬로건 응모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로 바이러스와의 거리 두기'가 감염관리실 손 위생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23.6%의 투표수를 획득한 '손 위생 안 하면 더럽, 안전한 손 위생은 The Love'는 인기상을 받았다. 선정된 슬로건은 추후 전 직원 대상 손 위생 증진 캠페인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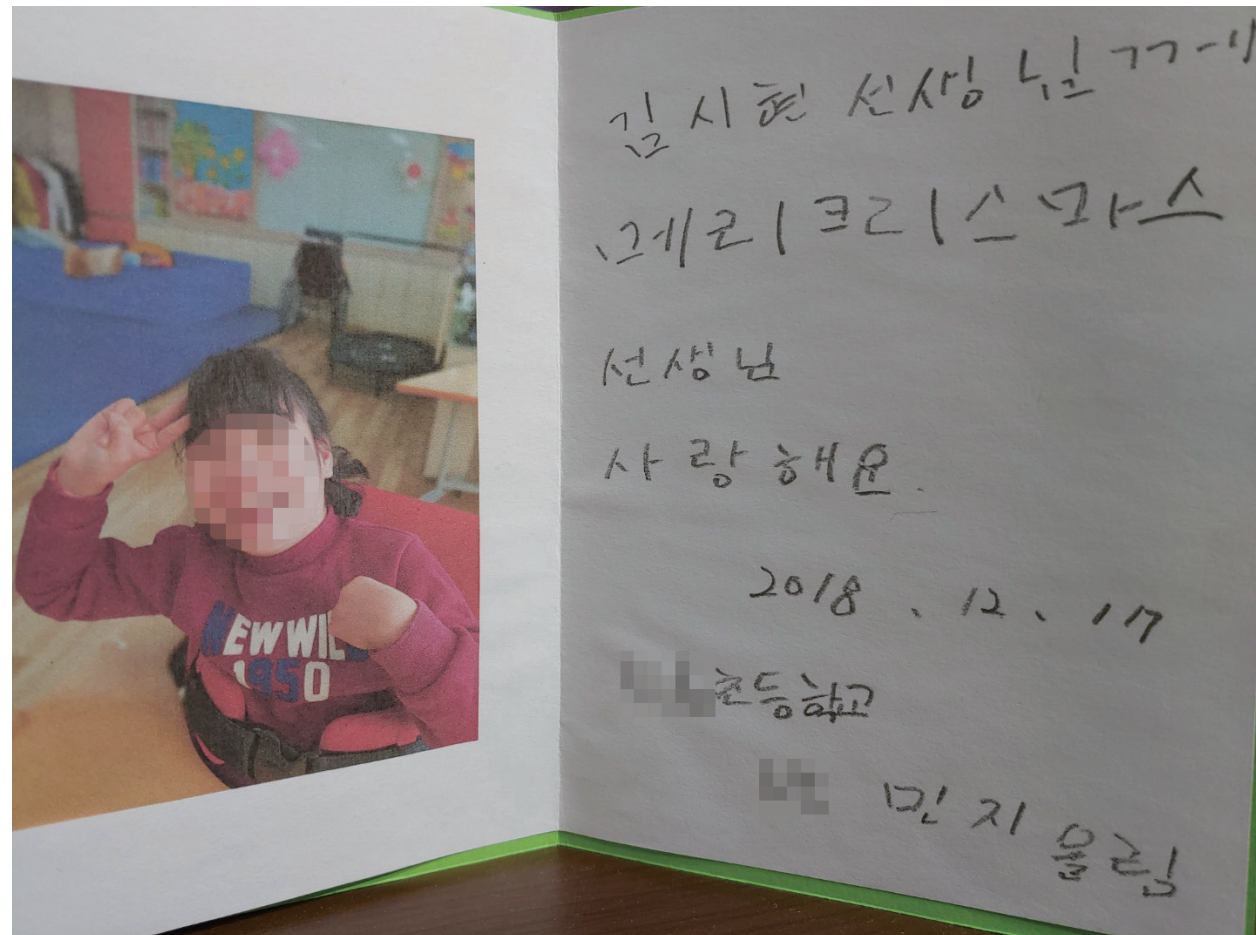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중도 중복장애 학생지원사업 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중도 중복장애란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장애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하대병원은 인천시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의 의료컨설팅을 지원하며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중도 중복장애 학생지원사업에 대해 사회공헌지원단 김시현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교실에 들어서니 예쁜 아이의 인사말이 들린다. 일어서지 못하는 까닭에 아이의 이마는 바닥을 향해 있다. 그나마 덜 불편한 한쪽 팔로 온몸을 끌고 문 앞까지 와서 한 상큼한 인사다. 아이의 인사는 그대로 마음에 닿는다.
여러 학교를 다니며 많은 아이를 만나지만 오늘처럼 인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대부분 아이들이 침상 생활을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다. 밝게 웃으며 종알종알 이야기를 하려 애쓰고, 불편한 손으로 즐겁게 박수도 치고, 자주 눈 맞춤을 한다.
예쁘고, 사랑스럽다. 얼굴을 들여다보며 “예쁘다”고 말해

주면 손뼉을 치며 정말 좋아하는 아이, “사랑해”라고 하면 꼬옥 안아주는 아이.
“꼬마 천사 민지야~ 백만 불짜리 네 미소 덕분에 무척 행복한 날이었어. 또 놀러 갈게.” 2018년 4월 25일,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 중도 중복장애 학급을 다녀온 날의 이야기다.

인천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은 2018년 2월 13일 인천시교육청과 중도 중복장애 학생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17개 일반 학교와 3개 특수학교에서 24개 중도 중복장애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70명의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중도 중복장애란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장애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이 중도의 정신지체를 나타내며 운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시·청각 손상, 간질·발작과 같은 중복장애를 수반한다. 인하대병원은 인천시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의 의료컨설팅을 지원하는 병원으로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특수교사와 학부모에게 전문의가 의료자문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인하대병원의 마음
수술이라도 해서 병이 씻은 듯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휠체어와 침상만을 오가는 아이들의 일상이 보는 이를 먹먹하게 할 때 나는 바보처럼 불가능한 수술을 꿈꾼다. 혼자서 걷고, 밥 먹고, 세수하고, 친구랑 놀고 싶은 아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이와 함께 하는 소풍을 꿈꾸는 부모님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하대병원은 늘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만난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2020년 뜻하지 않게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등교하지 못하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놓였다.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을 현장에서 돌보는 특수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어려운 현실과 마주했다. 아이들에게는 당장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 인하대병원 모든 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급여 자투리 모금액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좋은 일은 널리 소문을 내야 하는 것 같다. 인하대병원의 지원 소식을 접한 인천항만공사와 굿네이버스 인천지부도 지원 사업에 동참했다. 2년 전 중도 중복장애 학생 의료컨설팅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어온 아이들과 생필품 지원 사업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기쁨이 두 배다. 인천의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관내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작은 응원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취약계층은 더 늘어나고 있다.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5킬로그램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사람의 체온 36.5도와 같은 숫자다. 어쩌면 따뜻함의 무게도 3.65킬로그램은 아닐는지. 종종 접하는 아동학대 기사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도 인천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 곁에는 늘 따뜻한 부모님이 있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특수교사들 덕분에 든든하다. 아이들의 안녕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인천시 교육청과 여러 기관들이 있는 인천의 온기에 감사하다. 특히 아이들을 가족처럼 보듬어주는 특수교사들에게 존경을 전한다.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⑩ 아토피 치료제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은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이다. 좁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하려면 어떤 약을 사용해야 할까.

아토피 피부염은 어떤 질환이며 왜 발생하나요?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피부가 민감해 경미한 자극에도 가려움증이 생기고, 자주 긁게 되면서 피부가 손상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피부 염증이 악화되어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발생 원인은 다양한데, 식품이나 집먼지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 등 환자의 유전적 소인, 온도와 습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 환자의 면역학적 이상, 피부 보호막의 이상,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려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고, 적절한 목욕과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장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국소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나 면역조절제를 사용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와 이차 세균감염에 대한 항생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소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다양한 성분과 강도의 외용제가 있습니다. 병변 부위와 질환의 심한 정도에 따라 약의 강도와 연고, 크림, 로션, 젤 등 제제 종류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얼굴에는 약한 강도의 약제를 단기간 적용하며, 손이나 발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강도의 약제를 사용합니다. 전신으로 투여하는 약물에 비해 부작용 위험이 적지만, 국소로 사용할 때도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증상이 개선되면 되도록 빨리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 약국

용현동	약손약국	032-884-1886
주안동	라상약국	032-831-6065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032-875-0509
주안동	건강드림약국	032-433-5319
용현5동	현대메디칼약국	032-889-1891
송현동	백제약국	032-764-5747
송림동	종로약국	032-766-9301
	보명약국	032-762-3347
구래동	김포도담약국	031-987-5936
선학동	건강백세약국	032-813-2274
연수동	연수태평약국	032-818-7010
옥련동	운누리현대약국	032-831-4822
	동의당약국	032-834-8274
송도동	신도시약국	032-851-7516
용종동	운누리건강백화점약국	032-545-1535
작전동	우리팜약국	032-551-7535
작전1동	유원약국	032-551-5650
항동7가	유한운누리약국	032-883-2600
운서동	영종태평약국	032-746-1313
구월1동	이레약국	032-462-1851
구월동	구월메디칼약국	032-424-7425
구월4동	연세프라자약국	032-462-0392
부평6동	행복한운누리약국	032-503-9339
	유피아부평성모	032-505-2035
가좌동	메디팜성모약국	032-576-2028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한 협력 약국은 032-890-3323, 33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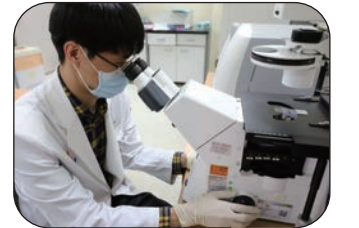
관련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언론사: 경인일보
주 제: 대한민국 나들목, 인천공항 내 의료센터

2020.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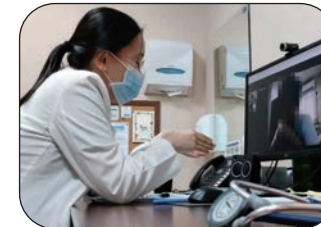
관련자: 간호본부
언론사: 보건뉴스
주 제: 인하대병원 비대면 환자 케어서비스 실시

2020. 9. 17



관련자: 연구지원팀
언론사: 보건타임즈
주 제: 혁신형 의사와과학자 연구 성과 발표

2020. 9. 18



참여자: 국제협력팀
언론사: 매일경제
주 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1호 환자' 탄생

2020. 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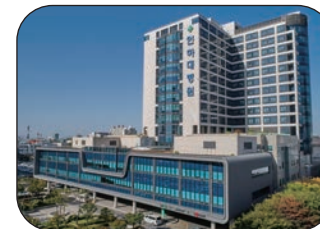
관련자: 김영모 병원장
언론사: 의학신문
주 제: 전화로 마음 잇기 챗봇 릴레이 참여

2020. 10. 7



관련자: 우성일 심장내과 교수
언론사: 헬스조선
주 제: 심근경색,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2020.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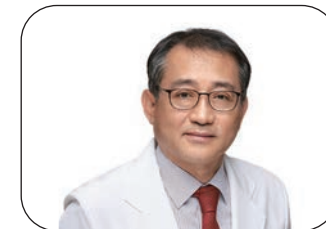
참여자: 희귀유전질환센터
언론사: 헬스인뉴스
주 제: 정부 추진 희귀질환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

2020.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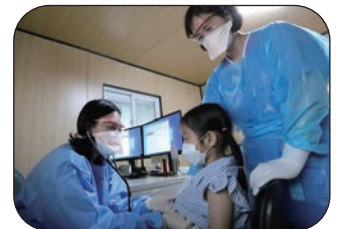
관련자: 이문희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덕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수간호사
언론사: 중부일보
주 제: 호스피스 의료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2020. 10. 27



관련자: 김명구 정형외과 교수
언론사: 데일리메디
주 제: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학회장 선출

2020. 11. 11



관련자: 미래전략팀
언론사: 한국일보
주 제: 인천공항 출국 전 코로나 검사센터 운영 추진

1 심평원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1등급

인하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종합병원 이상 81개 의료기관이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관상동맥우회술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다. 평가 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총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중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2 출국 전 공항 코로나 검사센터 운영 추진

해외 출국 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연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사와 협력하여 연내 인천국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바로 발급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인하대병원은 감염병 대응 역량과 공항의료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 전문인력 추가 확보, 출국 프로세스 연계 운영,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 예측, 치료 제백신 개발에 따른 대응 체계 마련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인천공항 방역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낼 예정이다.

3 중도 중복장애 아동에 나눔 문화실천

인하대병원이 인천지역 중도·중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인천교육시청에서 인하대병원과 시교육청, 인천항만공사, 굿네이버스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지원 기념식'

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실천을 통해 이웃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이번 지원 사업에 참가한다.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2017년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 등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등 4개 기관이 뜻을 모아 조성한 지원금 1,730만 원은 시교육청 소속 중증장애 학생 담당 교사를 통해 생필품과 장학금 등으로 총 73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4 신경외과 오세양 교수, 장기기증 활성화 '생명 나눔 공로상' 수상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오세양 교수가 최근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020년도 생명 나눔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이 수여하는 생명 나눔 공로상은 장기기증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매년 장기기증 활성화에 공이 큰 의료진을 선정하고, 그 공로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2015년 11월 개소한 뒤 생명 나눔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의와 코디네이터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기증자 발굴과 이식 대상자 매칭, 적극적인 보호자 면담, 유기적인 의료진 협업 등에 힘쓰고 있다.

5 따뜻한 손길로 생명 지켰다

인하대병원의 의술과 인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여러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하나의 생명을 지켰다. 60대 남성 A씨는 인하대병원에서 박상돈 심장내과 교수의 집도 아래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TAVI)을 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A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 새마을금고 새생명돌기회가 1000만 원을 쾌척했고, 보건복지부의 재난의료비, 한국의료지원재단의 후원, 인하대병원 사회복지기금 등이 모여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6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호환자' 진료

정부가 추진해온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호환자' 진료 첫걸음을 뗐다. 인하대병원에서 '호환자'와 '2호환자'가 연달아 나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민간규제 1호 샌드박스' 안건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의결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인하대병원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를 받은 뒤 실제 진료개시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전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첫 환자 상담에는 인하대병원과 한진정보통신(주), (주)헤셀이 공동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이 쓰였다. 인하대병원의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의료상담 및 문서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online.inha.com>)에서 예약 및 신청, 이용이 가능하다.

7 46개 협력병원과 온라인으로 노하우 공유

인하대병원이 협력병원들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은 인천의료원과 백령병원 등 46개 협력병원 의료진 및 실무자 2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 우려 탓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자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하대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 가치혁신팀,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경기서북부권 희귀유전질환센터 등이 참여했다. 인하대병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행사를 조합해 지역 보건으로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8 인하대병원 김영모 원장, '전화로 마음 잇기 챌린지' 참여

인하대병원 김영모 원장이 '전화로 마음 잇기 챌린지'에 참여하여 릴레이를 이어 나갔다. 전화로 마음 잇기 챌린지는 인천시가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방역 캠페인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몸은 멀리 있지만, 따뜻한 마음만은 전하자는 의미에서 기획추진됐다. 참여자는 '전화로 마음을 잇는다'는 의미의 손 모양을 담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가천대 길병원 이태훈 의료원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중현 의원장,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백승호 이사장, 히든레저그룹 정선문 회장(인하대병원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장 총원우회장)을 지목했다.

9 금아산업, 발전기금 기탁

금아산업(주)는 최근 인하대병원에 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수도권 확산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이날 인하대병원은 금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감사패에는 병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준 금아산업에 전 교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하대병원은 기탁 받은 발전기금을 원내 사회공헌지원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진료 시스템 정비나 소외계층 의료지원 등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0 정형외과 김명구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학회장

인하대병원 김명구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의 차기 학회장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1년이다. 차기 학회장직 수행 뒤 2021년 11월부터는 임기 1년의 학회장직에 올라 학회를 이끌어 나간다. 김명구 교수는 그동안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와 고시 준비위원, 보험 위원장, 법제 위원장 및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대한운동재활기세포 재생의학회 회장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진료 안내 (2020년 12월 10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신경과 NFRNN	김아름	일본내과		
		나정호	뇌신경질환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경련, 발작, 의식소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통갑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NN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신경과 (NRCB)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 내과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성하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 과	허윤석	비만 · 당뇨 · 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후재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관절염, 척추염, 통풍, 자기면역질환				
이승윤	관절염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김한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이정심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치료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소아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의학과 ☎2360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비뇨기 종양, 결석, 전립 질환			
	김동호	종양학, 복강경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종양학, 복강경			
	최수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산부인과 ☎2270, 2117	이방현	종양학, 복강경			
	장신아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목재건술, 미용수술			
성형외과 ☎3870	최승석	신경재건, 손목터널증후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체형교정, 보톡스 및 필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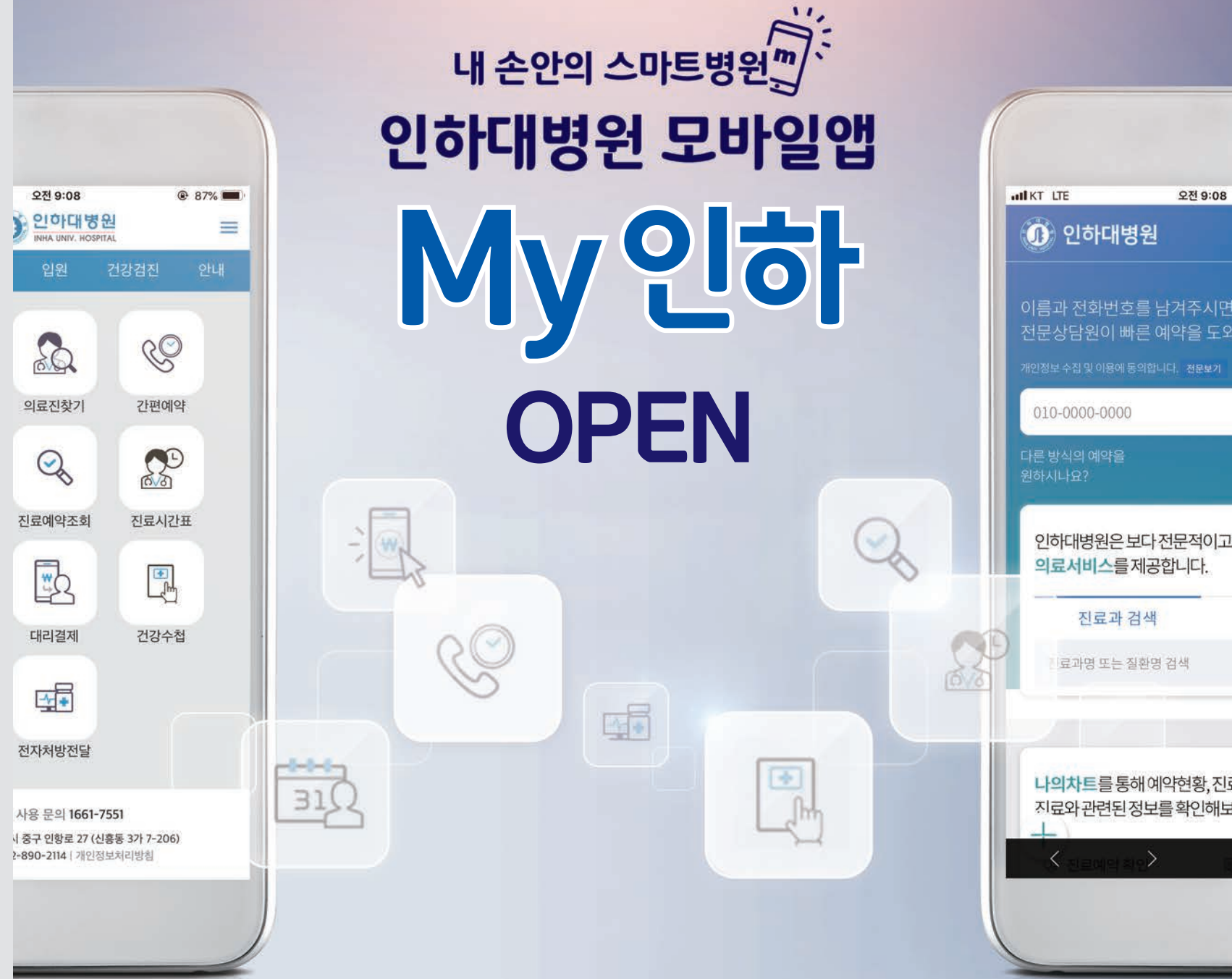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소아청소년과 ☎2260	김순기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이주영	해외연수 2020.2.20 ~ 2021.2.19			
	김수진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박지선	소아청소년 내분비학, 소아 성조숙 및 저신장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이돈행	담도·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소화기내과 ☎2224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만			
신종범		위 · 대장질환, 소화관 암, 소장질환, 염증성장질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경련, 발작, 의식소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통갑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률		파킨슨병, 손떨림, 소뇌질환, 근긴장이상증, 헌팅턴병, 기타 이상 운동 질환,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 뇌전증(간질) 질환, 수면질환			
신경과 ☎3860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내과 ☎2229	김기표	신장이식		
		황선덕	신장이식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김대혁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신장내과 ☎2229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신성희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권성우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박상돈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질환 중재시술			
백용수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신혈관센터 (CVC) ☎2200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안과 ☎2400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강성모	성형안과, 사시	
			김나래	해외연수 2020.3.1 ~ 2021.2.28	
			정지원	백내장, 각막, 외안부, 백내장 수술	
			김요셉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정소연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안과레이저	EYAL 레이저클리닉	
			알레르기내과 ☎2217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영상의학과 ☎2740-3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외과 ☎2250		김우철	유방방사선학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허윤석	소화기외과, 위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최유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정성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임성욱	유방외과			
	최윤석	위장관 외과			
	박신영	유방외과, 유방암, 유방질환			
	강지희	혈관외과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임성욱	유방외과			
	박신영	유방, 내분비외과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BTC) ☎2560-1	외과 GSBT	기세휘	유방성형, 유방재건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김규성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김영효			알레르기비염, 코골이및수면무호흡, 비중격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최정석			타액선 내시경술,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성대)질환		
김현지			어지럼, 난청, 중이염, 이명, 보청기		
김지원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이비인후과,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임상약리학과 ☎1167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조상현	임상약리/약동분석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김명욱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자보조기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재활의학과 ☎2480-1			박찬혁	뇌신경재활, 일반재활	
			김은석	근골격계질환, 허리통증, 목과 어깨 통증, 무릎통증	
			정신건강의학과 ☎3880	이정섭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 장애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맹세리	성인, 소아 정신건강			
	손지성	소아청소년정신과			
	문경호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김명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강준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관절염, 종양, 골다공증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정형외과 ☎2380	이동주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 대표전화 1600 - 8114 (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 890 - 2000 • 가정간호사업실 (032) 890 - 3590
• 종합검진센터 (032) 890 - 3331 • 암통합지원센터 (032) 890 - 3600 • 진료협력센터 (032) 890 - 3302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직업환경의학과 ☎2861	전유상	어깨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슬관절		
	류동진	슬관절(무릎), 무릎 스포츠 손상(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교정 절골술, 하지 외상		
	임종환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엽제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보건관리		
	김현철	뇌, 심혈관질환 평가 및 관리,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이상윤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평가		
	척추센터 (SCC) ☎2619	정형외과(OSSC)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신경외과 (NSSC)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척추종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척추종양
	재활의학과(RMSC)	김명욱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자보조기	
	치과 ☎2470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조현영	구강외과	
		최진호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클리닉	
		최지영	교정과	
		김소현	통합치과학과	
		김병건	통증치료	
	통증센터 ☎3921	김나은	통증치료	
		폐암센터 ☎3890	호흡기내과	류정선
	흉부외과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윤용한			폐종양	
김영삼	폐종양			
피부과 ☎2230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각질환		
	신정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 백 반증, 기타자기면역 피부질환, 여드름, 흉주		
	변지원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 전반적인질환		
	신현태	유전성피부질환, 소아피부질환, 항암제 피부부작용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이민경	동위원소치료		
핵의학과 ☎3160	외과(GSVC)	강지희	혈관이식외과	
	흉부외과 (CSVC)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완화의료	
혈액종양내과 ☎2199	임주한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하혜림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박지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김진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호흡기내과 ☎2216, 2217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류정선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남해성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박미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임준호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흉부외과 ☎2280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윤용한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김영삼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권영세	소아신경, 뇌전증		
희귀유전 질환센터	이지은	소아내분비,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김수진	뮤코다당증, 누낭증후군, 프러디-윌리엄스후군, 엔젤만증후군, 티너증후군, 유전성대사질환		
	신경과	최석진	말초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재활의학과	정한영	발달지연, 근육병, 뇌성마비	
	진단검사의학과	문연숙	세포유전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소화기내과	신용운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위암, 염증성 장질환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최윤석 위장관 외과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임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위암, 식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대장암	소화기내과	신용운 대장암, 위암, 역류성 식도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대장암, 위암, 위, 대장 질환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대장항문질환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간암	소화기내과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간질환, 간암, 만성 B형, C형 간염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안승익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이건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암, 뇌척추종양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이돈행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치료내시경		
췌담도암	소화기내과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질환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이홍렬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암	호흡기내과	곽승민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류정선 폐암, 폐결절,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염, 면역치료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치료,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폐암, 유방암, 부인암,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담도암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루시아 폐병리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박지선 혈액암, 혈액질환, 완화의료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추종양
		병리과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갈색세포종
	갑상선암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외과 이진욱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로봇수술, 구강내시경 수술, 유방 양성질환
		이비인후과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갑상선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핵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핵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유방암	임성목 유방외과
		박진영 유방암, 유방질환
		성형외과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피부암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신부인과	외과	김동호 자궁경부암, 난소 종양, 자궁체부암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 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이방현 부인종양학,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이외 신부인과 종양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부인암, 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병리과 최석진 신부인과병리
		윤상민 종양, 결석
비뇨기암	비뇨의학과	이택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종양, 소아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신이식,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이문희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두경부암	성형외과	기세휘 조직재건, 유방재건, 피부암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두두암, 위암, 식도암
		조진현 구강암, 편도 및 인두두암, 폐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하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피부과	병리과 박인서 두경부병리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박현선 사이베나이프 - 뇌종양, 뇌전이암, 두경부암, 두개기저부 종양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뇌척추종양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이암, 척추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병리과 박인서 병리학
		김준수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정형외과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족부 족관절 질환
		임주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조진현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근골격종양	혈액종양내과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피부과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성형외과	기세휘 피부암, 유방재건, 유방성형
		이문희 피부암, 희귀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신경외과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박현선 사이베나이프 - 뇌종양, 뇌전이암, 두경부암, 두개기저부 종양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정형외과	김준수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족부 족관절 질환
		임주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조진현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중양스트레스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재활의학과 김명옥 임재활 - 림프부종
		피부과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재활의학과	김명옥 임재활 - 림프부종
		피부과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성형외과 기세휘 피부암, 유방재건, 유방성형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하대병원** 검색

- 진료예약**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료예약 가능
- 진료비결제**
대기없이 간편하게 병원비 결제
- 진료대기순서**
대기 순서 알림으로 기다림 없이 진료
- 진료예약조회**
예약한 진료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내일정**
병원스케줄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실손보험청구**
복잡한 신청서류 없이 실손보험 즉시 청구
- 전자처방전달**
종이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전자처방 전달
- 건강수첩**
기본적인 건강관리 (혈압, 혈당, 체질량)

※개선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